

우리나라 불교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신생활과 문화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문화사는 곧 불교사라고 평가하는 외국학자들도 있는데, 이 말은 곧 한국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교적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왔다. 멀리서 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 멀리서 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 멀리서 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

강하고 탈현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점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구도적 실천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절실하게 되었다. 어제의 종교로 머물러 있던 불교가 이제 미래의 종교로서 우리 한국인과 세계인의 마음을 밝힐 시기가 온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협의회인 불민협을 구성하는 함정이 초발심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

다. 창립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여러 단체들은 우리사회의 각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여 종교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 힘을 모으고자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협의회인 불민협을 구성하는 함정이 초발심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

심도있는 사상적 접근은 필수적인 것이다.

불교로 불교가 지니고 있는 높은 차원의 계시가 운동차원에서 살아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이데올로기적 맹목성이 불교운동의 일부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불민협은 이점을 당면히 극복 하리라고 믿는다.

셋째로 중심의 어려움으로 크게 동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불교정신에 비추어 타당한 것만 꼭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불교 시민단체가 해 온 바 있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운동이 그런 것이다.

새롭게 발족한 불교시민단체협의회가 바른 신행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창립을 축하하는 바이다.

사설

실천 가능한 새시대 행동양식 개발해야

것이면 무조건 좋단 사고방식 대신에 환경의 고귀함과 작은 것도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같은 가르침인 사회과학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삶을 분석하며 연구한다.

이러한 시기에 불교시민단체협의회가 창립되어 그동안 흩어져서 활동하던 불교시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

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첨가하고자 한다.

첫째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냉전적 이념이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머무르게 되면 불교운동의 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사회갈등의 분석에서 원숙하고

시론

검정고시 연기한 김장관의 단견

교육부의 장관은 김숙희씨이다. 기독교인이

그가 국·공·종·교를 자격시험을 치르는 2만9천여명의 검정고시 날짜를 4월 16일에서 5월 5일로 바꾸었다. 4월 16일이 (부활절)이니 기독교 명절에 그런 일 해서는 안된다고 보름을 남겨놓고 손바닥을 뒤집었다.

난리가 났다. 2월 25일 원서마감한 후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 군대 갈 사람, 여행 갈 사람, 대공원에 놀러 갈 어린이, 그리고 가족들이 이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 불자 수험생들, 다음 다음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온갖 행사가 쪼뼛한 시즌인데, '종교활동' 하기가 난감하게 되었다.

우리 1천만 어린이들 영문도 모르고 '오 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에 조금은 손상을 입었다.

교육부는 태연하다. '수험생 중 기독교인의 종교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는 변명이다. 그럼 '기독교' '하나'만을 위한 행정이란 말인가? 교육부장관은 기독교인이다.

지금까지 국경일이나 방학기간 행사 날짜에 국가 자격고시 치러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민원(?)과 함께 1천만명 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관공사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그날 무슨 일 할라치면 적지않이 눈치 보인다는 얘기가 무성할 것도 백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정말 피곤한 일이다. 그런 일이 또 있을까?

너무 쉽게 날짜 고쳐

서울시가 1백 41개의 교회를 지정하여 무슨 행사를 하는 날에는 인근 노상을 주차장으로 써도 좋다고 허용했다. 상당 29곳, 사할 11곳을 함께 지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런 날이면 아무렇게나 주차해도 딱지 한 장 떼지 않는 성심을 썼지만 이제부터는 합법적으로 교회가 임대 주변을 점거할 수 있게 되었다. 갈수록 교회 근처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다시 검정고시 얘기로 돌아가자. 돈이 없어서, 혹은 아파서 혹은 해외에서 귀국해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못한 이들의 '새롭게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검정고시이다. 그것은 만학도가 대부분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이들이 중심을 이룬 '관란을 겪은 이'들의 새 삶을 위한 시도이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를 나름의 '부활'이다. 절망에 굴하지 않고,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것이 기독교를 위해한다고 여겨 다른 날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집단 이기주의의 회행

그렇지 않아도 종교문제로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결혼사에도 일기처럼 이 같이 할 수 없으며, 통상 친지가 지적천리로 되는 경우도 많다.

배달민족답지 않은 가슴아픈 정경이다. 그런 관여에 종교가 이 사회의 가장 큰 '집단 이기주의'로 커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우려할 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종교논리가 정치나 행정논리에 우선한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신채호(申采浩)선생이 개탄하던 말씀이 생각난다.

'조선에 무슨 주의(主義)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된다'

말을 바꿔보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의 기독교가 되지 않고 기독교의 한국이 된다'

이쯤되면 어떤 종교라도 그것은 '도그마'일 뿐이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종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이 땅을 종교가 필요없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기에 종교인은 스스로 종교인이 아닐 수 있는 즉, 사람 그것 뿐임을 이루어야 한다고.

정치권력이 종교의 시녀가 되고, 문화와 풍습이 종교의식의 타도목표가 되고, 가정과 친지가 종교생활의 하부구조가 된다면, 인간은 종교아래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중세 유럽의 관도가 재현될 뿐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종교가 갖는 참된 메시지는 절대신 이전에 사랑·자비가 아니던가.

우리는 김숙희 장관의 양식있는 처신을 요구한다.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문고행정(문고행정)은 겨레를 분열시키는 불씨를 자각하기 바란다.

그것이 기독교가 살 길이며 우리 민족의 공화를 위한 길임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장관 김숙희씨의 단견적 처사가 차라리 한순간의 판단미스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YS정부 출범이래 처처에서 나타난 현상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김형균 (한국불교재가회의 사무국장)

열린 마당

불교 시민운동

상호 사업지원등 유기적 관계 속 사회 공공 불사 전개하자

불민협 위상과 과제

교계 내외의 관심 속에 지난 1일 출범한 불교시민단체협의회가 대 사회적 활동과 내부 응화라는 두가지 숙제를 안고 마침내 시대에 올랐다. 불민협은 불교단체의 주제별 정책 토론회, 사단법 행사 및 사업 지원, 타종교계와의 연대사업, 국제종교 심포지움 개최, 자료실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불국정도 구현에 앞장 설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교계에 이와 비슷한 단체들의 연대 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부철도 11개 불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창립된 불민협도 외형상 종전의 결성 단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특색사에 따라 결성했던 종전의 단체들과는 달리 불민협은 각 단체의 이익과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구조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개별단체의 사업 지원 등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대 사회적 공공성을 전개할 방침'이라는 김동훈 운영위원장(경부철도 사무처장)의 말이 이런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민협은 우선적으로 광복 5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관련 행사와 6월 4대 선거를 대비한 공명선거운동, 환경운동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창립 취지에서 밝힌 대로 불민협이 화합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지는 점이다. 이것은 역시 이해관계의 조절과 지도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개개의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불민협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만약 불민협이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불교의 위상 강화는 물론 사회적 운동 역량을 한층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합을 전제로 불민협 안의 각 단체가 최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불민협 가입단체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회장 월주스님) 92.6.26 창립, 환경보호와 공해추방 및 생활환경보호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월주스님) 91.7.13 창립,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환경보호와 생명 존중하는 평화적 시민운동 전개로 민족통일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 90.3.25 창립, 방송프로그램의 역기능과 불교에 대한 왜곡 및 편파를 감시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청자 운동 전개.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정진스님) 92.10.9 창립,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간호하며,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배출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 90.2.14 창립, 이웃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밝혀주는 순수 종교상담기관으로 하루 24시간 상담.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의(회장 월주스님) 92.2.12 창립,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사상과 역사관에 입각한 이념 제정과 그에 따른 운동 주도.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 1911.6.15 창립, 대승불교에 입각하여 생활 속에 불교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운리를 확립하며, 또한 청소년 선도와 지도자 육성이 목적.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 88.3.3 창립,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시민을 상대로 환경윤리 습득과 자연친화적 생활양식을 전 사회에 구현.

▲한마을불자회 후원회(회장 윤소년) 94.2.15 창립,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법회를 개설함과 동시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후원사업을 펼친다.

▲가락불교청년회(회장 이원경) 93.5.1 창립, 경남 김해지역의 불교 신원단체로서 지역불교 발전과 환경보존에 노력.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94.9.30 창립, 자원봉사는 보살행의 전폭으로 확산을 발원하며 사찰과는 연합, 단체와는 연대, 복지시설에는 후원하는 것을 태도로 연구, 계몽, 교육활동에 정진.

현대만평

뭉쳐서 큰 힘으로...

BBS인기드라마 • 고승열전 • 윤창광 지음 • 1차분 10권 완간

베스트셀러 1위(불교서적)

큰스승 열분을 만나십시오!

숨 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우리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 혼탁하고 메마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스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큰 생각으로 크게 사셨던 분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큰스님들의 삶을, 일화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설로 엮은 책이 이제 열 권이 됩니다. 큰스승 열 분에게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듬뿍 얻으십시오.

고승열전 1 청달큰스님 마음에 타는 불무엇으로 프러내고	고승열전 2 효봉큰스님 그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노	고승열전 3 만암큰스님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	고승열전 4 동산큰스님 벼슬도 재물도 풀이에 이슬일세	고승열전 5 금오큰스님 큰생각 크게 먹고 크게 살아라	고승열전 6 만공큰스님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서 괴롭고	고승열전 7 전강큰스님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진다	고승열전 8 고암큰스님 도를 묻지 말고 나눠주며 살게나	고승열전 9 경봉큰스님 물처럼 사노라면 후회없으리	고승열전 10 용성큰스님 작은 솔씨가 낙락장승 되니
---	---	--	--	--	--	--	---	-----------------------------------	---------------------------------------

가문을 이을 새 하나 없으며 달려서는 어머니의 간청으로 허탈하게 후, 열반의 구도행자 심 본, 큰 스님의 인간적 고뇌가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법복을 벗어던지고 억관을 메었던 스님, 눈막이로 삭발 출가, 무성계 수행하여 절구 불 스님으로 불리었던 큰 스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세물도 권력도 명예도 담아 갈 수 없노라 이르신 큰 스님의 유유자적한 무소유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에 범종소리로 울립니다.

세속적 성공이 보정된 의사로서의 삶을 소개와 같이 비리고 중생의 병든 마음을 구제하고자 불문에 들어선 큰 스님의 큰 의사가 된 이야기.

졸렬만한 이해타산으로 아귀 다독을 벌여 가며 아옹다옹하는 세 상사들에게 크게 사는 법을 일깨워 주신 큰 스님의 큰 삶이 흥미롭게 펼쳐 지는데.....

독특한 스님만의 비범을 펼치 많은 제법 남자들에게 법음을 배부신 선지식 중의 선지식, 불교 근대사의 거봉.

23세란 젊은 나이에 건설한 큰 스님은 저명한 자기 실현만으로 마침내 해탈의 길에 도달하는데.....

문예 번 김순과 자비로운 말, 진정한 웃음으로 무소유의 진정한 삶을 살아오신 큰 스님의 생애를 통해 나눔의 미학을 깨닫게 됩니다.

호르는 물을 통해 인생을 통찰한 큰스님은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 일상사에 꽃기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참다운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이 비록 작으나 창공을 능멸히 하는 송골매가 그속에서 나오니 알로 있을 때보면 무정한 물건과 같으니. 아랑도 당당하게 산 물건이 아닌? 천지 만물은 모두 당당하게 산 물건이라네.

인어문화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47번지 전화 363-2554/5 팩스 392-4619